

익산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총력

수질검사 주2회로 강화, 매월 홈페이지 공개 블록화·노후관 교체사업 유수율 끌어올려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상하수도사업단(단장 최양욱)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를 기존 주1회에서 2회로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분원성대장군군 등 50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열화비닐 등 8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가장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도꼭지 42개 지점에 대해서도 매월 일반세균 등 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는 매월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일 7만여 톤의 생활용수와 2만 2천여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신흥·금강 정수장은 연4회 침전지, 연2회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 시 침전지와 배수지의 벽체균열, 도장부 바리 등의 시

설물 점검도 병행해 정수시설 운영 상태를 최적화하고 있다.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를 위해 블록화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2015년부터 2년간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 4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배수구역별 31곳의 블록을 구축하고 노후관 74km를 교체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총17개 블록을 구축, 노후관 7.4km를 교체했으며 올해는 블록 구축 8개, 노후관 6.0km를 교체한다.

이를 토대로 익산시는 2021년까지 현재 71.4%인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유수율 1% 증가 시 연간 약 4.5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울러 제수변과 소화전 등 변류정

비와 긴급 누수처 복구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92기구에 대한 누수탐사도 무상으로 진행해 누수 및 적수발생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상수도 전담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사용자 및 급수·누수 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가정 내 누수탐사 무상 실시, 7억 7천만 원 투입 노후 수도계량기 5,000점 무상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양욱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나운동 군경합동묘지에 800여 명 참석

군산시가 6일 오전 10시 나운동 군경합동묘지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인, 경찰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은 10시에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조총발사, 헌화 및 분향, 학생 대표의 헌시낭독, 국가유공자증서 전달, 추념사, 현충일 노래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감사 및 격려를 통한 자긍심 고취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보훈단체장 및 모범 국가유공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바탕으로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대표 음식 '짬뽕' 특화거리 사업 추진

군산시, 동령길·장미길 선정... 총 사업비 15억원 투자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을 위해 역점사업인 짬뽕 특화거리 조성 명소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가예산 7억5000만원에 포함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 짬뽕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특화거리 대상지역으로 기존상권 활용과 역사성과 관광지 연계 등을 고려한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동령길'과 '장미길'을 선정했다.

지난 3월에는 짬뽕특화거리 내로 입점할 영업자를 공모해 비회원을 비롯한 기존업소 3개소와 신규 9개소로 총 12개소 영업주가 입점자로 선정됐다.

신규 입점자들은 현재 관내 짬뽕을 취급하는 업소 영업자가 대다수이며

이 중에는 과거 중화요리 취급 경험이 있는 창업 예정자도 포함돼 있다.

군산시는 4월부터 특화거리 내 상가 번영회 및 입점자 간담회를 개최해 짬뽕특화사업 추진사항 및 방향 설명, 특화거리 내 원활한 입점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짬뽕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육성 전략 및 브랜드명 등 개발'의 연구용역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일 진행사항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7월말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거리 조성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화거리 내 도로·인도, 가로 경관 정비 및 음식점안내(키오스크) 편의

시설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기반조성과 주차장 시설, 조형물 설치 등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하여 정비된다.

또한 입점자에게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및 위생서비스 등 개선사업 지원, 특화거리 내 입점 영업소 간판 정비, 상수도 사용자 감면지원(조례제정 후), 식재료 공동구매 구축 운영·지원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짬뽕특화거리를 주제로 한 짬뽕페스티벌 개최 및 유명 셰프 초빙 이벤트 진행, 맛의 체험 관광맛 지도 제작·홍보, 입점자 경영컨설팅 및 친절교육, 블로그·SNS·TV 방송, 홈페이지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숙자 위생행정과장은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난 군산의 전통과 짬뽕특화거리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전국 관광객들로 하여금 군산의 짬뽕거리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여름철 재해 예방 총력 10월 15일까지 유관기관과 협조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자연재해 취약시설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3개 시·군, 유관기관 등과 재난 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단계별 비상근무에 필요한 농업·도로 등 19개 분야에 총 8개 반, 199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분야별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하수도시설물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30일까지 하수관거 1254km와 하수처리시설 26곳, 맨홀 3만779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우수관로 퇴적토 준설과 파손복구 여부 등을 점검해 장마철 침수와 침하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지난달까지 침수우려지역 12곳에 대한 우수관로 100곳, 약 15km에 대한 CCTV확인 및 기계 준설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각 분야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난대비 지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사업장을 점검해 장마철 전 공사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상급수와 쓰레기 처리 대책, 매립장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고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정비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에서 추진하는 군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 1만호를 돌파했다.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1만호점 돌파

가맹점 지정서와 스티커, 현판 전달식 가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군산에서 추진하는 군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 1만호를 돌파했다.

시는 지난 5일 군산사랑상품권 1만호 가맹점을 방문해 가맹점 지정서와 스티커,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1만호 가맹점은 수송동에 위치한 갯잇두마리치킨으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새내기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다. 작년 5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한 이후 약 1년여 만에 1만호점을 돌파한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시에 큰 의미가 있다.

상품권의 할인율과 더불어 시민들

에게 주는 인센티브 환급제도를 통한 상품권의 인기도 한 몫을 했지만, 군산의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가맹점 확보 노력과 홍보를 통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이제는 군산의 골목 어디에서나 우리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만호점의 가맹점이 되어준 갯잇두마리치킨(대표자 김호)에게 감사드리며 상품권 가맹점 경제적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업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경인양행, 익산 제3산단 분양계약 체결

1800억원 투자·350명 고용 효과 기대

(주)경인양행이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제3·4산단 분양완료가 임박해지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박철웅 부시장, (주)경인양행 최석주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3산단 내 추가 투자부지 확보를 위한 분양계약

을 체결했다.

이날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경인양행은 제3산단 12만5344㎡ 부지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8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35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초 착공해 하반기에 1차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2차 공장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경인양행은 1971년 설립돼 2018년 기준 연매출 3,300억, 직원 9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열료, 잉크, 전자재료용 유기재료, 사카린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익산 제3산단에 공장을 신설해 향후 색 재료, 전자재료 등의 분야까지 사업을 다각화해 첨단 소재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